

10월 보고서

RaonAtti 4th Thailand



10월 전체일정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 | | | | 1 한국어수업회의 홈스테이 마을 교장 선생님댁 방문 | 2 한국어수업 워킹스트리트 |
| 3 한국어수업 | 4 Day off 치앙마이 시내 구경 | 5 태국어수업 Elderly People care | 6 태국어수업 Elderly People care 태권무 연습 1기 안효섭씨 컴백 | 7 홈스테이 마을 방문 장례식 Elderly People care 태권무 연습 | 8 부디스트데이 (태권무 공연) Elderly People care | 9 Day off 미용실 방문 워킹스트리트 |
| 10 급 day off 청소 natang |  11일 ~ 12일 1박2일 유기농 농촌마을 체험 | 13 Day camp 시작★ 태국어수업 치앙마이 ymca | 14 Day camp 태국어수업 권윤경 단원 병원 | 15 Day camp 태국어수업 태권무 연습 영화보기 | 16 Day off 싼캄팽 청소년 수련관 견학 보상 방문 워킹스트리트 Natang 기념일 | |
| 17 Day off 샤오힌 ymca 방문 선데이마켓 나이트바자 | 18 Day camp 태국어수업 배구내기 태권무 연습 | 19 Day camp 싼캄팽 가든  | 20 Day camp 태국어수업 김현주단원생일  | 21 Day camp 태국어수업 P'Yo & 라온아피 회의 | 22 Day camp 워킹스트리트 준비 P'똥 표 바비큐 꼬치 먹은날  | |
| 24 Day off 태국 마사지 태권도 띠 주문 | 25 Day camp 태국업수업 (final exam) 태권무 연습 우리끼리 긴~피드백 | 26 Day camp 끝★ 태권무 연습 아침당변 내기 부루마블 | 27 Day off Mr.노먼씨 유니벌스룸 회의 10월 보고서 회의 | 28 싼캄팽Ymca 스텝과 미팅 10월 보고서 작성 | 29 샤오힌 ymca (환경) 커피집 미팅 치앙마이 ymca 점심 10월보고서 작성 | 30 할로윈 호박 만들기  |
| 31 Day off 할로윈파티 | | | |  | | |

Elderly people care (헬스케어)

우리는 헬스케어 프로그램에 앞서 9월 15일 썬캄팜 구청에서 환자관리에 대한 강의 및 발 마사지 식이요법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오전에는 강의를 태국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실 거의 알아듣지 못했다. 오후, 실습교육을 받을 때가 되어서야 우리가 진행할 활동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구청의 보건관련 부서 직원들, 각 마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마을의 환자들을 방문하며 식이요법, 운동 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고, 간단한 간식거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우리는 하루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8명 정도의 사람들을 방문했다.



다양한 사람들 중 기억에 남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라디오 아저씨”라고 부르는 한 아저씨는 9살 때,
고열로 인해 뇌기능이 손상된 40대 환자였다.
우리가 “라디오 아저씨”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라디오
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그 속에 사람이 살고 있다
고 생각해서, 라디오에 음식을 주려고 하는 통에
그동안 라디오 수십 개를 고장 내었기 때문이다.
이 아저씨는 예전에는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통제가
힘들었고 환자를 대하는 지식이 전무 했던 가족들은
안전을 위해 아저씨를 줄에 묶어놓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족들과 구청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금
은 공격적인 성향이 거의 없어진 상태다. 우리가 방문
했을 때에도 웃으면서 반겨주었고,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등 공격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을
만큼 변해있었다. 그뿐 아니라, 이전에는 혼자 하지 못
했던 샤워, 식사 등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아저씨를 통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이 아닌 환자와 함께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단 것을 알게 되었다.





이뿐 아니라, 가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사람들 중,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말 힘들고, 절망적이기까지 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가족들과 이웃들은 항상 웃으며 할머니에게 말을 거는 등, 환자를 대하는 모습이 아닌 “할머니”를 대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간호사가 할머니에게 주먹을 쥐어보라고 얘기했을 때, 할머니는 주먹을 쥐어보려 조금씩 손을 움직였고, 우리는 할머니가 비록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삶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같은 날 오후, 또 다른 할머니 한 분을 방문했다. 그 할머니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웃에게 당한 사기 때문에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지금은 허름하고 작은 집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다. 사람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할머니는 찾아간 우리들을 반기지 않았고, 심지어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오전에 찾아갔던 할머니보다 신체적으로는 훨씬 나은 상황이었지만, 가족과 이웃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에 삶에 대한 의지가 쉽게 약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두 할머니를 보면서, 가족과 이웃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가족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의 이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여간 태국에서 지내면서 봐왔던
사람들, 집들과는 달리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
들과 그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태국이라는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비는 막아줄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지붕아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벼룩
으로 가득한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TV에서
봐오던 장면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실제 살아가는 모습
이었다.

“No camp, No travel, This is reality”

P'Yo 가 말한 그 자체였다.

또한 우리는 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
그램에서, 신체적인 건강만 보살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것이 진정한 “헬스케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던 사람들이
구청직원들과 봉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점
점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방문할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무작정 따라다녀야만 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무슨 일을 도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우두커니
서있는 일이 많았다.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간식거리를 전달하는 일과 사진촬영뿐이었다.



4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무관심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부나 단체에서 진행하는 봉사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부터 돌아봐야겠다는 것이다.



부디스트데이

태국은 불교 국가답게 한 달에 한번씩 마을 사람들이 모여 스님에게 음식을 시주하고, 설법을 듣는 부디스트 데이가 있다. 10월 8일 우리는 부디스트 데이를 맞이하여 아침 일찍 싹캠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메콩 스쿨로 향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부디스트 데이 세레모니가 진행 중이었다. 마을 사람들과 전통의상을 입은 학생들이 일렬로 줄을 서 있으면 스님들이 큰바구니에 시주를 받았다. 우리는 늦게나마 대열에 합류하여 준비해 간 음식을 시주했다. 그리고 나서 스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불경을 외었고, 스님들의 설법이 이어졌다. 이런 종교적인 의례들이 끝나고 스님들이 떠난 후, 학생들의 전통 악기 연주와 춤으로 이루어진 공연이 시작됐다. 학생들의 공연이 끝나고, 우리가 준비한 태권무를 선보였다. 스피커가 고장 나고 도복 사이즈가 안 맞는 등 우여곡절 끝에 첫 공연을 무사히 마쳤다.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부디스트 데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마을의 잔칫날이었다.

태국에 와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전통 춤을 잘 추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 문화를 사랑하는 이유가 메종스쿨의 아이들처럼 어린 시절부터 전통 문화를 배우고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오히려 태국에 와서야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 태국 아이들과 달리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전통 문화를 깊게 배우거나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 권윤경: 부디스트 데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한국의 부처님 오신날을 상상했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우리나라의 불교 행사와는 많이 달랐는데 가장 신기했던 것은 함께 불경을 외면서 예쁜 은 세공 그릇에 물을 붓는 의례였다.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 의례였는데 같은 불교라도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

* 조준희: 스님이 불경을 외울 때, 아이들과 마을사람들이 모두 같이 외는 것이 신기했다. 어린 시절부터 불교를 접할 기회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 TV만화도 불경 관련만화가 나오니깐.



태권무

현재 진행중

부디스트 데이 4일전, 스텝으로부터 갑작스레 한국 전통 공연을 선보였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다. 사실 우리는 그 전부터 사물놀이 공연을 하기 위해 치앙마이 한인회와 치앙마이 라샤밧 대학교 한국어과에 악기 대여에 대해 문의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공연까지는 너무 촉박한 일정이었기에, 우리는 의상을 구할 수 있는 태권무를하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태권무 동영상을 찾고, 짧은 퍼포먼스를 곁들여 공연을 연습했다. 우리 중 유일한 유단자인 김우겸 단원이 주축이 되었다. 부디스트 공연이 끝난 뒤에도 우리는 앞으로 있을 문화교류에 대비해 계속해서 태권무를 연습하고 있다.

- * 김현주 : 이 곳에 와서 나의 재능을 발견한 것 같다. 어렸을 때 태권도 배울걸 ... 돌아가면 배워야겠다.
- * 김우겸 : 박소영 단원에게 미안하다. 못한다고 항상 구박만 한 것 같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너무 못한다.
- * 박소영 : 나를 제외한 모든 팀원이 태권무를 잘한다. 사실 처음 태권무를 연습할 때부터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 나도 태권무를 멋지게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 준다.

유기농 농촌 마을 체험

10월11일~12일 1박2일로 싼캠펙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phrao 농촌마을에 갔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밭에 마늘만한 크기의 양파를 심고, 벧짚을 덮는 일을 도왔다. 점심을 먹고 마을로 이동했다. 마을에서는 쌀 말리기-쌀 옮기기-벼 골라내기를 했다. 특히, 한국의 흑미와 같은 '닌'이라는 품종의 쌀을 보았는데, 김현주 단원의 태국 이름과 같아서 신기했다.

실 틈도 없이 이동해 밭을 갈고 씨 뿌리기 체험을 했다. 이후 저녁식사를 하고 남자단원과 여자단원이 나뉘어 각자 하룻밤을 지내게 될 집으로 이동했는데 태국에 온지 2달 만에 처음으로 떨어져서 지낸 시간이었다.



다음날 아침에 여자단원들이 지냈던 집에 모여 밥을 먹고 과수원으로 이동했다. 과수원에서는 구아바를 비닐로 씌우는 작업을 도왔다. 간단한 작업을 마치고 우리는 마을에 있는 사원을 찾았다. 사원에서는 거대한 와불과 석굴 그리고 전망대를 구경하며 사원의 역사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사원을 구경한 후 마을사람들과 작별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오는 차에 올랐다.



1박 2일 동안 짧은 체험 위주로만 진행되어서 농촌의 모든 것을 느낄 순 없었지만, 벼를 말리는 모습이나 서로 품앗이를 하는 모습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공통점 외에도, 농촌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젊은 층이 학업이나 취업을 하기 위해 도시로 빠져 나가 어린 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 만이 농촌을 지키고 있었다. 또한 열심히 일해도 농부가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열악한 경제 상황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이웃의 논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 마을이 사원에 모여 즐기는 축제도 볼 수 있었다.

이장님은 예전에 비해 공동체가 많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눈으로 본 태국의 농촌은 한국에 비해 공동체가 아직은 살아 있는 것 같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문제나 농촌 고령화라는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왜냐하면 태국에서의 사원은 단순히 종교적인 역할만이 아닌 마을 주민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장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Day camp (쌔캠프 YMCA)

일정표

10월13일 (1)
Day camp 시작
Ice breaking
노래 & 춤

10월14일 (2)
KOREA GAME 1
아이들이 손으로 직접
제기를 만들고 차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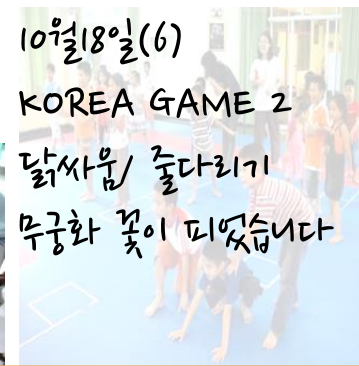
10월15일 (3)
KOREA FOOD
다같이 모여 원하는
재료로 주먹밥 만들기

10월16일 (4)
수업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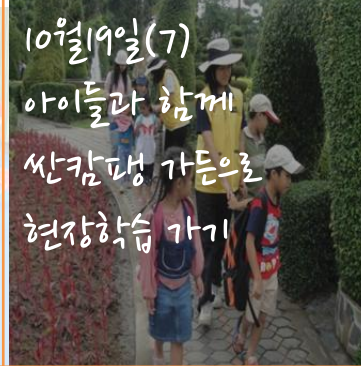
10월17일 (5)
수업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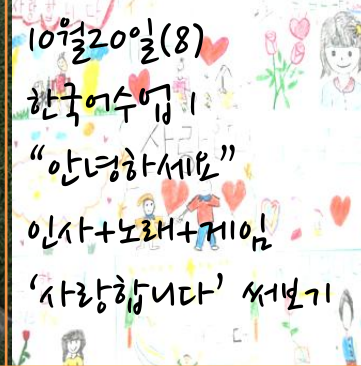
10월18일 (6)
KOREA GAME 2
달사육/ 줄다리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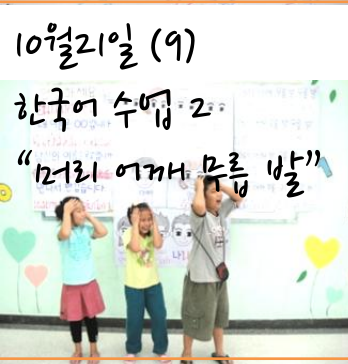
10월19일 (7)
아이들과 함께
쌔캠프 가든으로
현장학습 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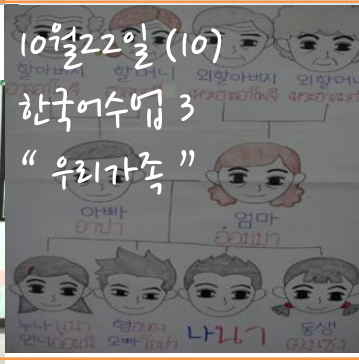
10월20일 (8)
한국어수업 1
“안녕하세요”
인사+노래+게임
‘사랑합니다’ 써보기



10월21일 (9)
한국어 수업 2
“너리 어개. 무름 밥”



10월22일 (10)
한국어수업 3
“우리가족”



10월23일 (11)
수업준비

10월24일 (12)
수업준비

10월25일 (13)
KOREA ART
한복 모자이크로 그리기



10월26일 (14)
DAY CAMP 끝
아이들과 함께 편지쓰기



★ 권윤경 (Ice Breaking & 한국어 수업)

Ice Breaking 수업은 아이들을 즐겁게 해서 수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처음 만난 날이라 그게 쉽지 않았다.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는걸 좋아해서 즐겁게 임할 수 있었다.

한국어 수업은 처음으로 연속해서 진행해봤는데 3일간의 수업 스케줄을 미리 짜두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좀 더 남는 수업이 된 듯해서 굉장히 뿌듯했다. 수업할 때는 혼자 앞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준희오빠와 함께 진행했다. 같이 하니까 서로 빠뜨린 부분을 보충하고 게임 진행할 때도 호흡이 잘 맞아서 수월했다.

그런데 수업할 때 같은 게임을 반복해서 하거나 같은 노래를 하도 많이 불러서 좀 지겹기도 했다. 마을에서 한국어 수업을 할 때는 재미있는 활동을 좀 더 많이 준비해서 아이들이 더욱더 신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싶다.





★ 조준희 (Korea game I)

나는 Korean game I 수업을 맡아 준비하고 진행했다. 한국 전통놀이를 아이들과 함께 하는 수업인데, 우리는 제기만들기와 제기차기를하기로 했다. 사실, 내가 책임자라고는 하지만 “제기차기”라는 아이디어는 팀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였고, 나는 제기 만드는 방법과 수업진행을 맡아했다. 한국 초등학교에서 하듯이, 한지를 이용해서 제기를 만들고 싶었지만, 한지를 한국에서 “수입”하기는 힘들었다. 마침, 싹캠팡과 그 주변지역은 이 지역 전통방식으로 만드는 종이인 “Ssa-paper”로 유명했고, 한지와 비슷한 느낌의 이 종이를 이용해 제기를 만들 수 있었다. Ssa-paper와, 철물점에서 와셔를 구해 수업준비를 마쳤다. 수업은 그룹을 나눠서 제기를 만들고, 만든 제기를 이용해 대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제기차기를 위해 교실이 아닌 넓은 태권도룸에서 수업을 진행해야했고, 태권도룸을 ”뛰어 노는 곳“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제기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결국 그런 이유로 제기차기 대결은 진행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만든 제기를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차고 던지며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기분좋은 수업이었다. 제기차기는 앞으로 학교에 들어가서도 한번쯤 해볼만한 수업인 것 같다. 싸늑 막막 찡찡.

★ 김현주 (Korea culture)

나는 Korean culture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다. 우리 팀은 한국의 음식을 소개하기로 했고, 아이들과 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으로 주먹밥을 선택했다. 오전 수업이었기 때문에 수업 당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재료를 준비했다. 아이들은 색색으로 준비된 여러 재료에 흥미를 보였고, 조별로 간단한 설명을 한 후 주먹밥을 만들었다. 아이들과는 영어로 소통할 수 없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짧은 태국어와 몸짓으로 설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먹밥이 부스러지거나, 모양을 만들지 않고 집어 먹거나 했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설명해주면서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이 주먹밥 만들기를 한 건지 밥 흘리기를 한 건지 모를 정도로 많은 양의 잔해(?)를 치워야만 했지만,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에 흥미를 보이고 즐겁게 참여했다는 점에서 수업을 잘 진행했던 것 같다. 데이 캠프를 진행하는 동안 아이들이 싸운다거나, 울음을 터뜨릴 때에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한 경우가 있었다. 마을에 들어가서도 분명히 있을 일이기 때문에 가기 전에 이곳에서 ‘싸우지 마’, ‘하지 마’ 등의 학교에서 아이들과 지내면서 필요한 단어를 배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 김우겸 (Korea game 2)

korea game 2를 맡은 나는 팀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닭싸움, 줄다리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수업들에 비해 비교적 사전 준비가 덜 필요한 수업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내가 생각했던 만큼 나에게 집중을 해주지 않았다. 나는 당황했고 여기저기 산만하게 돌아다니는 아이들 앞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 P'yo를 찾아 도움을 청할 수 밖에 없었다. P'yo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 박소영 (Korea Art)

이번 데이캠프의 공식적인 마지막 수업은 ‘한복 그리기’였다. 그룹을 나누고 미리 그려놓은 한복 위에 아이들이 색지를 찢어 모자이크로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사실 이번 수업은 그 동안 진행했던 수업과는 달리 아이들의 집중력을 고려하지 못해 실패작이었다고 생각한다. 오랜 시간 반복동작으로 모자이크에 집중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아이들이 금방 지쳤고, 그런 아이들을 달래면서 수업을 해야 하는 우리들 또한 지쳐버렸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마을에 들어가서 진행하게 될 korea art 수업은 짧고 굵게 재미있는 수업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 (다같이 모여서 하는 모자이크 방식의 수업은 피해야 할듯)

또한 우리가 처음에 수업을 진행한 방식은 수업 시작과 동시에 우선 각자 4-5명씩 아이들을 데려가 그룹을 형성한 뒤에 그날의 책임자가 혼자 나서 아이들을 집중시키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발생했던 문제점은 이미 그룹별로 친한 아이들끼리 4-5명 모여 장난을 치거나 수다를 떠는 등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했다. 집중하지 못한 아이들을 상대로 그날의 책임자가 혼자 앞에 나서서 수업내용을 아무리 설명해도 아이들은 놀기에 바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들을 한곳에 모아 수업 분위기를 잡고 그날의 책임자가 대략적인 수업 내용을 설명한 후 각자 4-5명의 아이들과 함께 자리를 이동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아이들을 집중시키고 수업을 좀더 원활하게 이끌어 갈수 있었다.





Day camp 를 마치다

우리는 그 동안의 일회성 수업과는 다른 2주간의 데이캠프를 진행했다. 이전 수업들에서는 서먹서먹한 분위기 때문에 수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데이캠프에서는 아이들을 매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고, 우리도 한결 수월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11월부터 2달 동안 지낼 학교에서는 더 긴 시간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즐거운 분위기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었다. 하지만 아이들과 친해지는 과정에서 우리를 선생님이 아닌 같이 놀아주는 P(언니, 오빠, 누나, 형) 라고 생각하게 되어서인지 다소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학교에 가서는 아이들과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면서도,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친밀한 '선생님'이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 같다. 이러한 수업 분위기에 대한 것 이외에도 실제 수업 진행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그리기나 게임 등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데이캠프를 준비하면서

수업별로 책임자를 정했다. 모든 팀원들이 한번씩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경험을 가지면서 책임자는 수업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졌고, 나머지 팀원들은 책임자를 도우며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때때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우왕좌왕 하기도 했다. 하루 전 날 수업 진행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지만, 막상 수업시간이 되어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는 팀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고, 수업을 진행하는 책임자와 나머지 팀원들 간에 호흡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에 가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데이캠프를 진행하면서 한번은 수업 전 팀원 모두가 쳐져 있었는데, 김우겸 단원 역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밝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파이팅을 외쳤고, 그 덕분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었다. 만약 그대로 수업에 들어갔더라면 우리도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들이 신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신나고 즐거울 때 그 결과도 더 좋게 나온다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

2주간의 데이캠프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 좋은 연습이 되었고 이것을 경험 삼아 학교에 들어가서는 더 좋은 선생님이자 친구가 되고 싶다.

선데이마켓 & 나이트바자 10월 17일

선데이 마켓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치앙마이 시내 타페 게이트 부근에서 열리는 워킹 스트리트이다. 우리는 2시간을 구경했지만 선데이 마켓의 모든 것을 볼 순 없었다. 전부 둘러 보려면 족히 3시간은 걸릴 것 같았다. 선데이 마켓의 특징은 치앙마이 주변의 고산족들이 시내로 내려와 직접 만든 수공예품 등을 파는 곳으로, 일반 사람 누구나 거리에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이트 바자는 치앙마이 시내 유명 호텔들이 모여 있는 창끌란 거리와 러이끄로 거리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전통 수공예품부터 가짜 명품까지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다. 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바가지를 쓰기 쉽다. 하지만 우리의 박소영 단원은 유창한 태국어 실력을 발휘하여, 오히려 싸 가격에 예쁜 티를 구매하였다.



* 김우겸 : 여자 단원들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된 시장 나들이 덕에 마음에 쏙 드는 가방을 살 수 있었다. 재미있었던 것은 가방 가격을 깎기 위해 집에 갈 차비가 없다며 가방 파는 아주머니에게 말하자 아주머니께서 쓰고 계시던 모자를 주시며 길에서 노래를 부르며 모자를 내밀라는 말에 흥정에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가방 값을 지불했다.

* 박소영 : 태국 책자에 나와있는 나이트바자 & 선데이 마켓을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 day off 때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다. 사실 기대했던 나이트 바자보다 선데이 마켓이 더 크고 다양한 제품이 많았다.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선데이마켓을 한번 더 구경하고 싶다.

* 김현주 : 선데이 마켓을 전부 둘러보고 싶었는데, 시간 부족으로 인해 다 둘러보지 못해서 아쉽다. 정말 다양하고 신기한 물건들에 눈이 반짝반짝 했다. 마켓을 통째로 사고 싶었지만 ... 📷 📷

* 권윤경 :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7시쯤 저녁을 먹고 나오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움직이기 힘들 정도였다. 매주 이렇게 큰 시장이 열리고 그 큰 시장에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낸 물품이 아닌 다양한 수공예품이 가득한 것이 신기했다.

* 조준희 : 선데이마켓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에 놀랐다. 크리스마스 이브 명동거리에 버금가는 수준인데, 이런 시장이 매주 열린다니 정말 신기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가판에 앉아 물건을 팔고, 심지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며 관광객들에게 돈을 받는 모습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서 웃는걸까 하는 마음. 그리고 남대문 한복판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춤을 출 때, 외국 관광객들이 웃으며 돈을 주는 장면. 그냥 좀 불편했다.

워킹스트리트 10월 23일

매주 토요일 4시부터 열리는 싼캠펙 워킹스트리트에서 YMCA는 환경, 사랑, 평화 등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펼친다. 이제까지는 YMCA에서 하는 활동을 도와주는 보조자의 역할을 했지만, 이번 워킹스트리트에서는 우리가 YMCA 부스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캠페인 주제를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우리가 느끼기에 태국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지나치게 많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었고 국내훈련 당시 일회용 비닐 봉투가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NO PLASTIC BAG'이라는 주제의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 여기에 여수 시민의제에서 지원 받은 친환경 봉투의 취지 또한 이 캠페인의 주제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우리는 스텝들과 함께 메시지 보드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보드를 만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보드를 준비하고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바구니, 플라스틱 밀폐용기 등을 전시하기로 했다. 또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회용 비닐봉투에 대한 영상도 준비했다.

저녁 5시쯤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캠페인을 시작했다. 먼저 싹캠핑 고등학교 친구들과 피켓을 들고 워킹스트릿을 돌며 'NO PLASTIC BAG, REDUCE PLASTIC BAG, REUSE PLASTIC BAG' 이라는 메시지를 한국어, 태국어, 영어로 외쳤다. 가두 캠페인이 끝난 뒤, 다시 YMCA 부스로 돌아와 준비해 간 친환경 비닐봉투를 나눠주고, 영상을 상영했다.





사실 토요일은 우리의 휴일이었다. 그래서 처음에 기획할 때는 망설이기도 했지만,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워킹스트리트에서 우리의 주도로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휴일도 반납하고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언어의 문제로 인해 캠페인의 취지와 친환경 비닐봉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못했고, 그로 인해 기대했던 것 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가 나눠주는 친환경 봉투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고 호응이 적었던 것으로 보았을 때 한번의 캠페인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기는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에게 한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던 활동이었다.

캠페인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고민은 우리부터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매주 환경 캠페인을 하는 싹캠페인 YMCA에서조차 일상생활에서 많은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었고, 우리 5명 또한 아무렇지 않게 비닐 봉투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목적으로 캠페인을 준비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생활을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되었다.

* 김현주 : 우리가 주도해서 워킹스트리트 캠페인을 진행했다는 점이 뿌듯하다. 하지만, 캠페인으로 모든 걸 바꿀 수 없는 것 같다. 사실 이게 기존의 이곳 사람들의 생활방식인데 한 두 번의 캠페인으로 쉽게 바꿀 수는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바뀐다 하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자신 혼자만 바뀌기는 힘든 일이다. 하지만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이 변한다면 언젠가는! 그 날을 위해 쭈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캠페인을 하던 곳 바로 앞이 '비닐봉지가게'였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다들 웃음을 금치 못했다는 ...

* 권윤경 : 이제껏 짜여진 스케줄에 우리가 참여만 하다가 우리가 기획부터 해 볼 수 있는 기회라 좋았다. 또한 우리 5명만 일 한 것이 아니라 YMCA식구들 모두 함께 회의하고 일해서 끝나고 난 후 더더욱 뿌듯했던 것 같다.





바쁜 일정 속에도 틈틈이 치앙마이 YMCA에서 만든 외국인 대상의 태국어 교재로 수업을 들었다. (책 두 권이나 뒀다) 우리의 아짠(선생님)은 사오힌 YMCA language 스쿨을 담당하는 피뿌다. (*피 : 우리나라의 언니, 형, 오빠, 누나와 같은 의미) 우리는 하루 두 시간씩 수업을 받고 거의 매일 시험을 친다. 아짠은 매일 “응아이 막막” (진짜 쉽다)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야악 막막” (진짜 어렵다)이다. 사실 처음에 예정되어 있던 수업일정이 끝나고 나서도 수업을 더 받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요청을 한 그룹은 우리가 처음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태국어를 잘하는 건 아니다. (얼의와 실력은 비례하지 않는다 ...)

- * 김현주 : 파싸 타이 싸늑 막막 쫘.
- * 권윤경 : A를 받았는데 막상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여전히 잘 못한다. 언젠가 태국어 수업이 아닌 일상 태국어를 잘 하고 싶다. 쭈쭈!!!
- * 박소영 : 태국어 어렵지만 재미있다. :)

산캄판그 YMCA 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치앙마이 시내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싼캄팽 YMCA 3층 짜리 건물 2층 교실 2곳을 개조한 곳
에서 살고있다.

Raonatti room





사무실



회의실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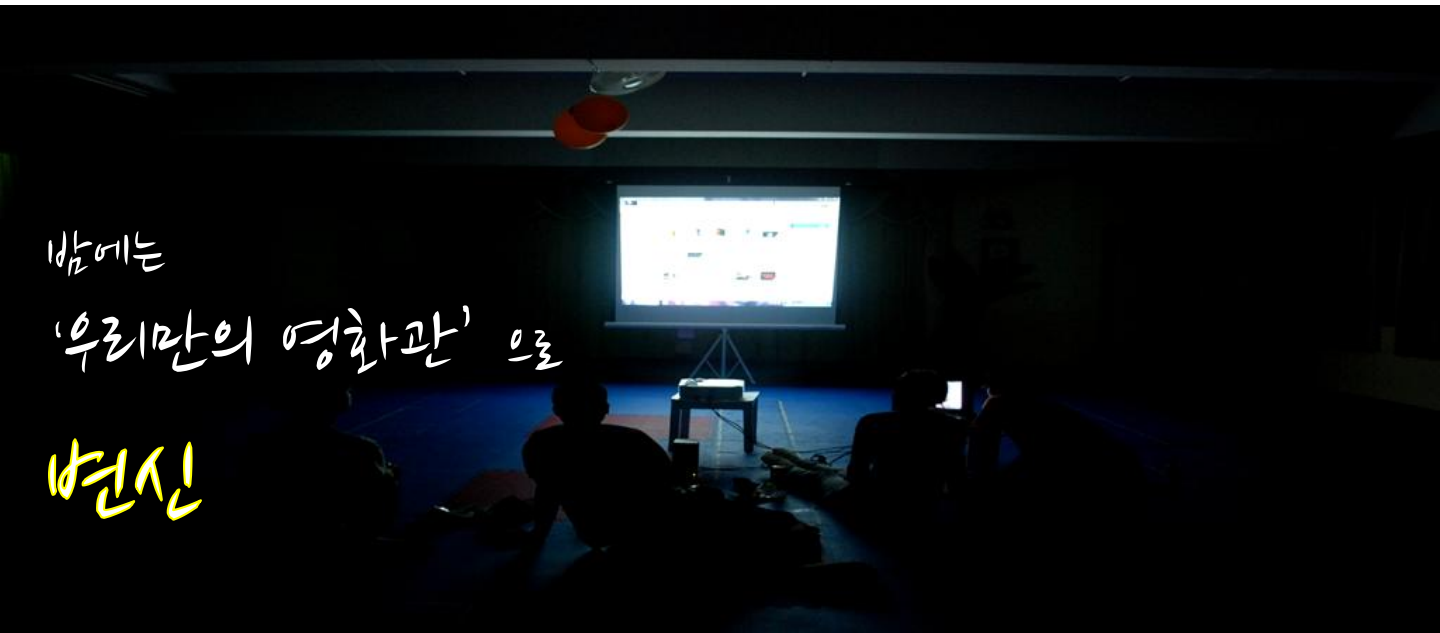


주방



낮에는 태권도장

1층에는 YMCA 사무실, 회의실, 주방, 태권도장이 있다. (태권도장에서는 태권무 연습도 하고, 스크린을 설치해 영화관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



밤에는

'우리만의 영화관' 으로

변신

2층과 3층에는 YMCA 주말학교 교실이 있다.
 그 중 2층에는 캐나다방과 9월 보고서에서 소개했던
 한국방 2곳이 있고 3층에는 일본방이 있다.



캐나다방



KOREA ROOM

싼캠핑 YMCA 앞마당에서는 하루 일정을 마치고 자주
 배드민턴 과 배구대회가 펼쳐진다. (느어이 막막 찡찡=
 진짜 너무 힘들다-) 권윤경 단원은 과도한 열정으로
 인해 왼쪽 팔목에 피멍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넓은 운동장



우리는 주로 자전거를 이용해 싼캠프 YMCA 주변을 돌아다닌다. 싼캠프 YMCA 주변에는 은행, 우체국, 경찰서, TESCO, 세븐일레븐 등 가까운 거리에 편의 시설이 있고 불교 국가답게 사원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NATANG 커피 집과 한잔에 20바트 (우리 돈 800원) 밖에 하지 않는 ‘진짜’ 생과일 쥬스 가게를 즐겨 찾는다. 이 두곳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기 싫다. (한국물가 생각하면 슬퍼진다 ㄸㄸ)



썰태우를 타고 10분 정도 가면 우산마을이라고 불리는 보상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썰태우 대신 자전거를 이용해 그곳을 찾곤 하는데 P'YO와 함께 가는 날이면 싹틈없이 페달을 밟아야만 쫓아갈 수 있다. 한번은 25분 만에 싼캠프에서 보상까지 주파한 적도 있다. 하하^^ 보상에서는 싼캠프보다 싼 가격에 옷이나 가방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쇼핑을 하러 간다.



+ 우리들의 소소한 이야기

매일 아침 당번은 처음 태국에 도착했을때 정해진 순번대로 (김현주-박소영-권윤경-조준희-김유겸) 하루에 2명씩 돌아간다. 보통 아침 먹기 30분전 내려가 P'또한 셰프를 도와 아침을 준비한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우리는 파오잉첩 (가위 바위 보) 으로 1~2명이 설거지를 한다. 우리는 가끔 부루마블 이용해 '아침당번 3일 연속 하기' 게임도 하고 (1~2시간 동안 초 집중) 부루마블 황금얼쇠 카드 뽑기로 '라자내기' '커피내기' '워킹스트리트 간식 사기' 등을 한다. 사소한 이야기 하나 더 이곳 태국 사람들은 '콜라'를 많이 마신다. 다만 한국에서 먹던 탄산 콜라와는 다르게 '김 배바진 콜라'에 얼음을 넣어 먹는다. 다들 처음에는 탄산이 없는 콜라 맛이 싱겁다고 이야기 하곤 했는데, 두 달이 지난 지금 김배바진 콜라의 참 맛을 느끼고 있다. 아러이 막막 :)



10월 보고서 쓰기
자전거 타고 natang coffee 집 가는길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피요 (P'Yo)'

스케줄, 생활 등 라온아미에 관련된 모든 일을 관리해주며, YMCA 건물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항상 장난치며 밝은 모습이지만 진지할 땐 진지한 남자다. P'Yo 는 하루 일정을 마치고 가지는 술자리를 매우 즐기는데 가뜰이나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우리팀과 쿵짝이 잘 맞는다. 술자리에서는 생활에 대한 피드백, 앞으로 일정에 관련된 정보도 공유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진솔하게 나눈다.



산캠프 YMCA 최고의 셰프 '피톤 (P'Ton)'

우리에게 아침, 점심, 저녁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P'Ton 셰프! 다양한 태국음식뿐 아니라 한식 (고추장 불고기, 갈비찜 등), 스파게티 (생 토마토를 갈아서 만드는 스파게티 맛은 상상초월) 등 못하는 음식이 없다. P'Yo 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YMCA에서 생활하고 있다. P'Ton 은 덩치에 맞지 않게 귀여운데 핑크색을 좋아해서 우리가 '핑크Ton'이라고 부른다. 덧붙여 김우겸 단원과 톰과 제리처럼 환상의 콤비를 이룬다.



라운아띠 태국팀의 엄마 피낭 & 피멍

라운아띠가 생활함에 있어서 엄마처럼 섬세하게 챙겨 주는 두분!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 주는 피멍과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피낭 마켓의 주인이자 '매낭'(낭엄마)이라 불리는 피낭. 얼마 전 우리의 몸보신을 위해 삼계탕을 끓여주셨는데 진~짜 맛있었다.



싼캠핑 YMCA의 활력소 피브렛

싼캠핑 YMCA의 책임자이자, 항상 즐거운 우리의 P'브렛. 특유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우린 모두 아! 출근 하셨구나.. 라고 생각한다. 젊은 우리보다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차다. 종종 우리가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일 때면 라운아띠 쭈쭈! (힘내라) 힘차게 외쳐준다. (힘이 안날래야 안날수가 없다^^)

YMCA의 맥가이버 피싱

싼캠핑 YMCA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다. 덕분에 싼캠핑 YMCA는 정원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권윤경 단원이 박살낸 화장실 파이프를 순식간에 원상태로 고쳐놓기도 하고, 우리가 즐겨 타는 자전거도 수시로 손봐 주신다.

베스트 드라이버 피넬이족 아저씨

YMCA 스텝은 아니지만, 순수한 자원봉사 차원에서 우리의 발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커다란 밴을 이용해 언제 어느 곳을 가든 편하게 데려가 주신다.

귀여운 동생 펜 & 넷

처음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왔던 펜, 웰컴 파티 때 화려한 불쇼를 보여준 넷. YMCA 스텝은 아니지만, 우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Youth Volunteer 친구들이다. 우리의 활동을 도와주기도 하고 여가시간에는 배드민턴, 배구 등 운동을 함께 하기도 한다. (분명 중국어과/관광학과 학생이라고 하는데 체육학과 학생인 것 같다. 만능 스포츠우먼!)



피넬이족



넷



펜



피싱!

태국의 날씨

치앙마이가 있는 태국 북부는 여름, 우기, 겨울의 3가지 계절을 가지고 있다. 3월부터 6월까지가 여름, 7월부터 9월까지가 우기, 10월부터 2월까지가 겨울이다. 지금은 우기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중이며, 아침에는 꽤 쌀쌀하고 낮에는 여전히 더운, 일교차가 심한 날씨이다. 계절상 우기는 아니지만, 이틀에 한 번 꼴로 많은 비가 쏟아진다.

* 박소영 : 태국의 날씨는 예상보다 훨씬 쌀쌀하다. 처음 태국에서 생활했던 9월보다 더욱더 춥다. 아마도 지금 계절이 '태국의 겨울' 이라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특히 밤에 샤워 할 때 너무 춥기 때문에 자전거, 태권무 등 운동을 열심히 한 뒤에 냉수 씻어야 한다. ㅏㅏ 하지만 아직까지도 찬물로 샤워하는 것에는 내 몸이 익숙해 지지 않고 있다. 악! 요즘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면 냉수 마찰을 하는 기분이다...

* 권윤경 : 10월부터 겨울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겨울과는 굉장히 다른 날씨여서 놀랐어요. 초가을에 가깝다고 할까? 지금 태국 사람들은 긴팔을 입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아직도 너무 덥다. ㅏ

요즘 태국의 날씨는 춥다

* 조준희 : 10월부터 겨울이다. 한 겨울엔 18도~19도 정도로 기온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초가을 날씨정도? 그런데 몸이 태국날씨에 적응해서인지 벌써부터 쌀쌀하다.

* 김현주 : 9월에 비를 맞는 바람에 감기에 걸린 후로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에 감기가 완전히 낫질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비를 바가지로 맞아도 멀쩡했는데 ... 한국의 일교차는 이 곳에 비하면 약과다. 아침이나 저녁엔 진짜 춥다 싶을 정도로 쌀쌀 하다가도 낮만 되면 땀이 뻘뻘 나게 덥다. 오늘도 아침에 긴팔 입었다가 더워서 반팔로 갈아입었다. 차라리 그냥 확 추웠으면 좋겠다. 승질나게 오락가락하지 말고 -_-

태국의 장례식

태국에서 지낸 2달 동안 3번이나 장례식에 방문했다. 기본적으로 흰옷이나 검은 옷을 입어야 하고, 예의를 갖추는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장례문화와 비슷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나라 장례식 풍경과는 달랐다. 딱딱하고 어두운 분위기의 장례식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는 슬픔에 쌓여있거나 우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놀랐다. 오히려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아무렇지 않게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한국의 장례식은 한곳에서 치루어 지는 반면 태국의 장례식은 한 마을내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치루어 진다는 점이 달랐다. 새로운 문화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3번이나 방문하면서 어느덧 태국문화에 익숙해 지고 있다.

* 조준희 : 한국의 시골 장례식 분위기와 비슷하다. 물론, 형식적으로만 다르지만 말이다. 태국의 도시 장례식은 이것과는 다소 다르다고 한다. 본 적은 없지만, 더 격식을 차리는 등, 우리 도시 장례식과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하지만, 웃고, 사진을 찍는 밝은 분위기라고 해서, 이 사람들(혹은 우리 시골사람들)이 슬픔을 덜 느끼는건 아닐 것이다. 위로의 한 방법이 아닌가 한다.

* 권윤경 : 가장 놀랐던 것은 굉장히 젊은 분이 돌아가셨을 때조차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까지 웃고 계셨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였으면 그런 '악상'의 경우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을 텐데.. 이런 장례 행사도 생활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것도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를 믿는 불교의 영향일까?

RaonAtti

1기 안효섭 단원 방문

10월초 라온아띠 태국팀 1기 안효섭 단원이 찾아왔다. 안효섭 단원은 예전에 홈스테이를 했던 마을에서 4일을 보낸 후, 썬캄펑 YMCA로 돌아왔다. 그리고 썬캄펑과 샬오힌 YMCA 스텝 및 태국 친구들을 만나며 이틀간의 시간을 보내고 귀국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먼저 했던 선배 단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김우겸 : 안효섭 단원과의 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팀의 행복과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 권윤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홈스테이 가족이 옆집 차를 빌려서까지 공항에 마중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부러웠다. 나도 앞으로 가게 될 홈스테이 가정의 '가족' 이 될 수 있을까?

* 조준희 : 먼저, 우리 팀원이 아닌 사람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부터 참 기분이 이상하달까, 암튼 그랬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해외여행에서 숙식이 거의 공짜로 해결된다고 말씀하신게 기억에 남았다. 나도 태국에 다시 온다면, 호텔말고 YMCA 건물에서 자야겠다.

+ Halloween Day

* 라온아띠 홈페이지 '태국팀 국외게시판' 을 확인해주세요 ^^



오늘은 할로윈 데이입니다 ^^*



컴퓨터, 쫄임!



감사합니다. 끝